



금양상선

서초2동 항우빌딩으로 이전

금양상선(회장 우방우)은 11월12일 서울 본사 사무실을 서초2동 항우빌딩 5층으로 이전한다. 전화와 FAX 번호는 변동이 없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42-3호 항우빌딩 5층 △전화 : 3453-5152

△팩스 : 3453-5153 △email : keumyang@kyshipping.co.kr

대우로지스틱스

부산신항 물류기지 입주업체 선정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부지 1차 입주업체로 (주)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1월3일 신항 배후물류부지 37만평 중 1차로 분양하는 1만평의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김영삼 부산발전 연구원장)를 열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개 업체 가운데 (주)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업체인 (주)대우로지스틱스와 일본의 물류업체인 DAT-JAPAN, 후쿠오카운수사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주)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은 사업 능력과 화물유치계획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 입주업체로 선정됐다고 평가위원회 측은 밝혔다.

(주)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곳 물류부지에 4,000여평의 물류센터를 조성. 와인, 가구, 식품, 세제류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의 라벨링, 분류, 조립 등으로 2006년 33만

톤을 시작으로 매년 약 59만톤의 물량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BPA는 이러한 물동량 창출을 통해 신항의 사업모델을 전개하고 부산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항만물류업계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BPA는 이번에 분양한 물류부지 1만평외에 내년 중 2차로 완성되는 물류부지 12만 8,000여평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부료를 통해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해운

서비스브랜드대상 운송부문 1위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이 11월4일 서비스브랜드대상 운송서비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었다.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이 국내 주요서비스 분야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5년 서비스 품질 브랜드를 조사해 각 부문 1위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 행사는, 성공적인 서비스 문화 경영 및 서비스브랜드 성공 사례를 국내외에 전파하여 서비스 품질 수준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서비스 경영 및 서비스 브랜드 관련 산·학·연 전문인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로 진행된 이 시상업체의 선정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등의 평가와 서비스 제공시스템 및 경영평가 등이 종합적인 측정 대상이 되었으며, 서비스 산업 평가에 특화되었다.

국내 최초로 한국선급과 BVQI에서 ISM코드와 ISO9001:2000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대한해운은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25년의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철광석, 석탄, LNG등의 안전하고 정확한

수송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탁월함을 인정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전세계 다양한 고객, 다양한 화물에 대한 각별한 관리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질을 최고로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우수한 선박의 지속적인 확보로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LNG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대한해운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전문수송선사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 영역의 발굴과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해상화물수송 서비스 제공을 시현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해운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운수창고 부문 최고기업상을 수상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동남아해운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동남아해운(회장 임병석)은 2005년 11월15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동남아해운은 이번 조직개편이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효율적 관리 및 영업역량 강화를 통한 영업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단행되었다고 밝혔다.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영업조직을 수출입 영업본부, 해외영업본부, 지역영업본부로 세분화하고 경영지원본부에 프라이싱팀을 신설하여 영업과 영업관리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또 인천/울산/광양/대구지점을 지역영업본부를 통합 관리

함으로써, 지점영업을 활성화하고 지점의 연계적 관리를 도모했다.

이번 개편으로 동남아해운 조직은 기존 1독립팀, 5부분 2지점 20팀, 1지역 3지점 4팀, 2현지법인 10개지점에서 국내 8부분 4지점 20팀 해외 2현지법인 8지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지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신규임원에 대한 보직 부여와 본부장 및 팀장에 대한 인사이동도 단행됐다.

〈임원선임〉 △대표이사 회장 임병석 △부사장 이상기 △경영지원본부장 손상목 △감사 오학균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마케팅 및 프라이싱 김운식 이사 △수출입영업본부장 남극영 이사 △해외영업본부장 및 해외영업팀장 조경래 부장 △지역영업본부장 연동석 부장 △별크영업본부장 정철권 부장 △물류지원본부장 정성한 부장 △부산지역본부장 한정태 이사

〈팀장〉 △관리본부 재무팀장 송성학 차장, 회계팀장 이정수 대리, 관리본부 인사팀 및 총무팀장 김광수 차장, 관리본부 심사팀장 서성찬 차장 △경영지원본부 기획팀장 최성근 부장, 프라이싱팀장 이상재 차장, 정보기술팀장 김상수 차장 △수출입영업본부 수출팀장 홍준문 부장, 수입팀장 송재만 차장 △지역영업본부 인천지점장 및 인천지점 영업팀장 이원태 부장, 인천지점 운영팀장 선종광 차장, 울산지점장 이근호 차장, 광양지점장 이석근 차장, 대구지점장 신철범 부장 △별크영업본부 업무팀장 안석은 부장, 별크영업팀장 황수연 차장 △물류지원본부 운항팀장 및 물류운영팀장 양진영 차장 △ 부산지역본부 영업팀장 동준 차장, 업무팀장 황운섭 과장, 운영팀장 정원석 차장, 재무팀장 양석용 차장

〈해외주재원〉 △말레이시아 법인장 윤한석 차장 △동경지점장 김귀영 차장



SK해운

3/4분기 영업익 167% 증가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올 3/4분기 매출액 3,886억원, 영업이익 302억원, 경상이익 62억원, 당기순이익 196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4.3%, 영업이익은 167%, 당기순이익은 337.5% 각각 증가했으나 경상이익은 26.4% 감소했다.

이에 따라 SK해운의 올 3/4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은 1조1,559억원, 영업이익은 909억원, 경상이익은 64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1.6%, 43.4%, 34.0% 각각 줄었다.

STX Pan Ocean

글로벌 네트워크 사령탑체제 구축

STX Pan Ocean은 11월9일 오전 이사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경영성과에 따른 공로로 이종철(李鍾哲) 대표이사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김대유(金大有) (주)STX 부사장을 STX Pan Ocean 부사장으로 전보(轉補) 발령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현지 밀착형 해외영업 강화 및 LNG선, 컨테이너선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등 영업력 강화에 있다.

지난해 11월 제 2의 창업을 선언한 바 있는 STX Pan Ocean은 금년 국내 최초 싱가포르 증시 상장, LNG사업 신규 진출, 해외 법인망 확대 등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STX Pan Ocean은 향후 이종철 사장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 사령탑의 진두 지휘하에, 사업 다각화 및 해외 영업 강화 등 영업력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2010년 세계 5대 선사로의 비전 달성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철 대표이사는 1979년 입사해 런던 사무소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7년 만에 사장에 오른 해운업계 최고의 전문 경영인이며, 김대유 부사장은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사업 전문가로 20여년간 종합상사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지주회사인 (주)STX의 자원에너지 사업을 6,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STX Pan Ocean은 해운전문 사장과 종합상사 출신 부사장의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업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STX Pan Ocean은 10월18일 루마니아의 알럼사(Alum S.A)와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 알럼사와는 첫 거래인 이번 계약으로, STX Pan Ocean은 2006년 1월부터 2년간 인도 베티(Bedi)항/디기(Dighi)항/샤크리(Sakhri)항-루마니아 콘스탄자(Constanza)항 노선에서 약 150만 톤의 보크사이트(Bauxite)를 운송하게 된다. 알럼사는 루마니아 내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 회사로 1996년 민영화됐다.

세븐마운틴그룹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세븐마운틴그룹(회장 임병석)은 11월1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1,000여명의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롭단합행사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썬바운틴 가족 모두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전 임직원간의 친목도 모는 물론 더 나아가 그룹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했으며 공식행사와 체육행사, 화합의 한마당,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단합, 일관, 지속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건 이번 행사는 대구, 포항 등 전국 각사업장의 전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화합, 창조, 전진, 도전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열띤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이 날 공식행사에서 임병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외부문제를 그룹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그룹사 전임직원이 공감할 만한 미래비전을 만들 계획"이라며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향후 계열사들의 미래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임 회장은 이어 "빠른시일 내에 향후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이 가질 계획이며, 비전선포식을 제2의 창업으로 삼아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체육행사와 화합의 한마당에서는 축구, 줄다리기, 직급별계주 및 O, X 퀴즈, 응원전, 명랑운동회 등 임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이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체육대회 성적 발표 및 시상, 행운권 추첨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입장식 일체감 평가, 응원점수, 종목별 순위 등을 집계하여 발표된 종합우승은 썬바운틴해운, 세양선박, 한리버랜드, KC라인, 우방타워랜드 등으로 구성된 전진팀이 차지하여 부상과 우승기를 차지했다.

폐회식에서 임갑표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행사가 그룹가족의 새로운 다짐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업무에 복귀해서도 한마음 한

뜻으로 그룹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인터해운

대북지원쌀 10만톤 수송

인터해운(대표 이용배)은 최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대북 쌀 차관 외국산 10만톤에 대한 해상수송 수행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선적 기간은 11월10일-12월중으로 방콕에서 선적해 12항차로 남포, 해주, 원산, 홍남, 청진에 양하하게 되며 첫항차에는 인터해운 소속선박 'INTER NOBLE'호가 11월 13일경 방콕항에 입항, 11월말경에 남포항까지 수송하게 된다.

한편, 인터해운은 2004년에도 대북한 쌀 차관 태국산 10만톤을 운송한 경험이 있는 국적선사이다.

한진해운

4,300TEU급 '컨'선 4척 발주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이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선대 운영을 위해 4,300TEU급 사선 컨테이너선 4척을 발주한다.

한진해운은 11월17일 오전 9층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과 삼성중공업 김징완 사장을 비롯하여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3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건조계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주된 선박은 컨테이너 적재능력 4,275TEU(1TEU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1개)로 3만9,600DWT, 길이 260.7미터, 폭 32.2미터, 엔진출력 4만9,680마력, 운항속력 24.5노트의 중대형 컨테이너선이다.

총 선가는 2억 5,520만 달러(한화 2,640억원)로, 장기적인 중소형 선대의 자사선 확보와 만기 용선선박에 대한 대체 투입을 목적으로 2008년 상반기 중에 차례로 인도 받아 주요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며, 동급 선박 4척을 추가로 발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진해운은 2003년과 작년에 6,500TEU급 사선 8척을 발주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유럽 노선에 투입시킬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미주 노선에 차례로 투입하여 선대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꾀해 왔다.

한진해운은 현재 전세계 56개 노선에 총 83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박 투자를 통한 신조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경쟁력 유지 확보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11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여의도 본사에서 박정원 사장 주재로 '2006 글로벌 경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한진해운은 매년 초 연간 사업계획 발표에 맞춰 글로벌 경영 전략 회의를 열어 왔으나 올해는 유가와 환율, 변화가 예상되는 세계 해운 시장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이번 회의에는 미주, 유럽, 서남아, 중국, 동북아 등 국내외 5개 지역 본부장과 본사 각 팀장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2005년 사업실적 Review 및 내년 세계 경제 상황과 해운 환경 변화, 각 지역별 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영업·물류 현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06년 영업 목표 검토 및 핵심 사업 역량 강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내년 주요 경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 핵심사업 역량 강화는 해운 환경 변화 대응과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원가의 지배 선단 구축, 직판조직과 해외 영업 거점 확대 등 영업력 강화, 주요 기항지의 전용터미널 확보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박정원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의 노력으로 목표 초과 달성을 하자"고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다가올 해운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 현재 진행 중인 경영혁신과 철저한 고객만족의 경영으로 세계적인 종합 물류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자며 격려했다.

현대상선

31만톤급 유조선 명명식

국내에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만들어진 첫 선박이 출범했다.

현대상선은 11월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박맹우 울산시장,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만톤급 초대형유조선의 명명 및 취항식을 가졌다.

권양숙 여사는 이 선박의 명명자 자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해 신조선의 이름을 '유니버설 퀴'로 명명했다. 이 선박은 길이 333m에 폭 60m, 높이 29.6m로 정구 축구장 3배에 맞먹는 크기다. 1회 취항에 우리나라 하루 원유소비량에 해당하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건조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유니버설 퀴' 호는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차입금과 일반투자자 출

자금으로 설립한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가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하고, 현대상선이 용선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이런 선박투자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도입했다. 권양숙 영사는 이날 축사에서 "국민이 소유하고 해운 기업이 운항하는 유니버설 퀴호의 취향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계에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상선은 이 선박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로 원유를 수송하는 항로에 투입해 연간 7-8회 운항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유니버설 퀴'의 인수로 7년만에 새로운 선박을 인수하게 됐으며, 총 17척의 초대형 유조선과 12척의 중형 유조선 등 모두 29척의 유조선단을 운영하면서 국내 최대 유조선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유니버설 퀴호 인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현대상선의 제2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현대그룹의 새로운 도전과 비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노정의 현대상선 사장은 "이번 유니버설 퀴호를 시작으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앞으로 20여 척 이상의 선박이 새로 건조되어 투입될 것이며 세계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아해운

3/4분기 매출액 1.6% 증가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은 올 3/4분기 매출액이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매출액은 1394억원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13억원, 16억원, 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5%, 83%, 88% 각각 줄었다.

이에 따라 올 3/4분기까지 매출액은 3,9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32억원과 155억원으로 9.2%와 15.7% 감소했다.

부산항만공사

APEC 투자환경설명회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추준석)는 11월17일 부산시의회에서 'APEC 투자환경설명회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외국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추준석 사장은 오는 2011년까지 개장될 예정인 신항 30개 선석 개발계획과 배후물류단지 조성계획 등을 설명한 뒤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추 사장은 특히 신항 배후물류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물류단지가 자유무역지역내에 있어 임대료가 상하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사장은 또 "BPA는 현재 부산항 재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공고해 놓고 있다"면서 국내외 관련업체들이 큰 관심을 달라고 당부했다.

추 사장은 이와 함께 부산항은 전세계 100개국

500개항만과 항로를 개설하고 있고, 365일 부두가 가동되는 등 경쟁항에 비해 항만 효율성이 매우 높다"며 지속적으로 부산항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추 사장은 이날 오후 BPA를 방문한 이고르 레비틴 러시아 교통부장관과 러시아 최대 해운선사인 페스코(FESCO)의 암브로소프 사장 일행 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러시아가 부산항을 수출입 전진기지로서 이용해 주도록 당부했다.

추 사장은 이어 레비틴 장관 일행을 항만안내선으로 안내, 선상에서 신항 및 신항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과 부산항 재개발 계획 등을 설명한 뒤 러시아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했다.

인천항만공사

중국 연태항과 자매결연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와 중국 연태항무국이 10월28일 오후 중국 연태항에서 자매항 결연식을 공동 개최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서정호 사장과 연태항무국의 지 샤오보 사장은 이날 열린 자매결연식에서 자매항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양 항의 자매결연이 공식 성사됐다.

인천항과 연태항이 서명한 자매결연 합의서에는 △양측 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한 항만 발전방향 논의 △상호 직원 파견근무를 통한 인적 교류 △항만운영 정보 교환 및 신기술 도입 △기타 합의에 의한 교류 사업 등 총 4가지 사항이 담겨 있다.

서정호 사장은 축사를 통해 "연태-인천 항로 개설 10주년을 맞는 해에 자매결연의 인연을 맺게 돼 기쁘다. 양 항구가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공동 발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자매결연식 행사를 마친 서정호 사장은 연태항

내 주요 화주들을 방문하고, 연태항내 외국적 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인천항 포트 세일즈를 펼쳤다.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연태항은 국제 가공과 제조업의 기반 시설을 배후에 갖춘 항구로서 산둥성 경제개발의 주요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인천 거주 중국인의 50%가 연태 출신일 정도로 한국,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안고 있다. 연간 화물 처리량은 약 4,000만톤에 달하고, 인천과의 교역량도 연간 약 10만명의 승객과 약 10만TEU의 컨테이너가 오가고 있다.

현재 인천-연태 간에는 한중훼리와 경한해운이 각각 카페리 노선과 정기 컨테이너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중훼리는 올해로 항로 개설 10주년을 맞았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항만물류인력 단기과정 개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정이기)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과정을 개설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개설됐던 해운·항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올해부터 5년간 연 2회에 걸쳐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 11월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매주 3일간씩 개설되는 제1회 과정은 항만물류 동향, 컨테이너 운영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교과목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장소는 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 홍보관으로 수강비는 1인당 3만원,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오는 3일까지 여수대 물류시스템 공학과(061-659-3350)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061-797-4343)으로 신청하면 된다.